17. 교회와 세상

교회는 분리될 수 없이 인간적이며 신적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살고 활동하지만, 그 목적과 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인류의 구원만을 추구하지만, 현세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 각자는 자신의 신분과 성소, 그리고 받은 은사에 따라 교회의 사명에 참여합니다. 평신도들은 세상을 내부로부터 성화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는 국가를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비켜서 있을 수도 없고 비켜서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세상 앞에 나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 곧 하느님의 인간적 얼굴이시며, 구원에 관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과 함께 교회의 사명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리될 수 없이 인간적이며 신적입니다. '교회는 그 기원에 있어서 신적인 사회이며, 그 목적과 그 목적에 직접 이바지하는 수단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인간 공동체입니다'(레오 13 세, 회칙 "사티스 코니툼"). 교회는 세상 안에서 살고 활동하지만, 그 목적과 그 힘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1]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하느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창조된 인간은 특히 그러합니다. 또한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는 실재들의 질서를 세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서는 특정한 표지들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 표지는 어떤 사람들(성직자)일 수도 있고, 물질적 실재들(성전, 그리고 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해 일상적 용도에서 따로 떼어 놓은 그 밖의 물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경신례를 목적으로 하는 이 '거룩한 실재들' 곁에는, 우리가 '속된' 것 또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피조 실재들의 영역(노동, 가정, 문화,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관계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은 하느님과 관련되고 속된 것은 하느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아드님의 *강생*으로, 속된 실재들도 성령의 활동으로 신앙과 성사를 통하여 그분과 일치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실재는 그 일상적 용도에서 떼어 놓을 필요 없이, *구속* 사업에 협력하는 수단이자 *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세속성'이라고 부릅니다(라틴어 *saeculum*, 곧 '세기'

---

[1] 성 호세마리아, "교회와의 사랑", 22 항. [역자 주: 원문에는 6 항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 인용문은 escriva.org 한국어판 22 항에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온 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세상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에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죄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그 실재를 치유하고 들어 높인다는 것도 알기에, 세상을 하느님께 이끌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역사 속의 교회

교회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공동체로서 세상 안에 존재하며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교회와 세상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느님과 무관한 공간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지상의 것으로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느님의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이 나라는 정치적 실재가 아니라 영적 실재입니다. 세상은 하느님에게서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세속주의는 종교를 사적이고 무의미한 영역으로 밀어내려 하면서 세상이 하느님에게서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말입니다.

동시에 세상은 교회 기관으로서 교회에 대하여 *자율성*을 지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마태 22,21)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그리스도교적 해결책이란 없으며, 다양한 구체적 해결책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질서, 곧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정치·경제·사회 체제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지상의 가치들이 하느님에게서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며, 세상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길이 되도록, 그리고 그 결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의 일치에 봉사하는 길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정치적 기획이 아니며, 세상을 '신성화(神聖化)'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사명입니다. 교회는 오직 인류의 구원만을 추구하며, 그 구원은 지상의 복지나 정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현세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인간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정적·사회적, 직업적·경제적 맥락 속에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또한 복음의 메시지는 정의와 평화의 증진을 통하여 실재 전체가 구속되기를 요구하고, 그리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역사 안에서 점차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현세의 성취가 잠정적인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개선되고 완성되어야 하며, 마침내 하느님께서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느님 나라에 상응하는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제도적으로도 사회적·현세적 문제들을 다룹니다. 기술적이고 우연적인 측면이 아닌, 문제들이 하느님과의 일치와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한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를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은 죄이며, 모든 죄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회 환경 안에서 참된 '죄의 구조'를 이룰 수도 있는데, 이 구조는 사람들이 진리와 공동선, 은총의 삶,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 교리*를 가르칠 때,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사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세상의 복잡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며 문화들과 종교들 사이의 대화를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속성과 교회의 사명

앞서 지적했듯이,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그리스도인의 세속성, 또는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세속적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속성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특정한 시대와 문화 안에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성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교회의 교도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교회의 세속적 차원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다양하다*"("평신도 그리스도인", 15 항).

이와 관련하여, 교회 안에는 다양한 개인적 *위치*가 있으며, 이 위치들은 다시 세상과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방식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서로를 구별하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 점을 시사합니다. 곧 목자들과 평신도들과 수도자들은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고유한 방식으로*, 또는 *자기 몫에 따라* 교회의 사명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례 받은 모든 이에게 유일하며 동일합니다. 곧 하느님의 영광(하느님께서 알려지시고 인정받으시며 사랑받으시는 것)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점에서 복음화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이 사명에 참여하는 방식은 각자의 고유한 성소와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2].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삼중 구원 직무를 수행하며, 세속적 실재들의 "마치 내부로부터"[3] 사명을 실현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관계를 맺는 '일상적' 방식(그리스도인이 아닌

---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901-913 항 참조.

[3] "교회 헌장", 31 항 참조.

이들과도 공유하는 방식)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수도 생활*은 우리가 지향하는 하느님 나라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고유한 증언 방식(복음적 권고의 '서원'으로 표현됨)을 내포하며, 이 증언은 교회와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4]. 그리고 *성직자들*에 관하여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끊임없이 성장시키시려고, 당신 교회 안에 온 몸의 선익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직무를 세우셨다."[5] "목자들은 그 특별한 성소로 말미암아 주로 그리고 명백히 거룩한 교역에 정해져 있다."[6] 이것이 그들이 사명에 참여하는 고유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자 각자는 자신의 신분과 성소, 그리고 받은 은사들에 따라 교회의 사명에 참여합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에는 성사들과 카리스마들이 포함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사명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지는 *임무*들 역시 이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례에 힘입어* 교회의 복음화 사명 안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춥니다.*

이러한 임무들은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7]. ㉠ 교회 자체의 내부를 향한 영역(그리스도인들의 사도직 또는 일상적 '사목'), ㉡ '외부를 향한' 영역, 곧 다른 종교들 및 비신자들과의 관계, ㉢ 교회 일치 운동의 영역(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가톨릭 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신자들은 어떤 임무에 참여하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소와 사명에 따라 그렇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받은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임무들이 있습니다. 이 임무들은 신앙(교리 교육이나 학교의 종교 교육 등), 경신례(전례 참여), 사랑(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일 등),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사목적 결정을 돕기 위한 평의회나 시노드 참여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직업적으로 갖춘 능력이 있는 분야, 예를 들어 경제나 법률 분야 등에서 교회의 목자들과 협력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한 통치 임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임무들 가운데 일부(성품성사를 요구하지 않는 임무)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제정 직무'(서품 직무가 아닌 직무)로 정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에

---

[4] 봉헌 생활에 관해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914-933 항 참조.

[5] "교회 헌장", 18 항.

[6] 같은 문헌, 31 항.

[7]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선교 교령", 6 항 참조.

참여한다고 해서 평신도가 더 평신도가 되거나 덜 평신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고유한 성소와 사명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래서 교회의 목자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평신도의 역할: 내부로부터 세상을 성화함

평신도들은 세례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신 카리스마들로 말미암아 "현세의 일을 하고 그것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8] 고유한 성소와 사명을 하느님께 받았습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의 고유한 사명은, 다른 세례받은 신자들처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임무 외에도, "마치 내부로부터"[9] 세상을 성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거나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며 보내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을 성화하러 '나가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은총과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은총은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삶을 하나로 모으고, 생기를 불어넣고, 힘차게 이끌어, 하느님의 구원 활동 안으로 통합시킵니다. 사실 "그들의 성소는 인간 사회 한가운데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까지 이른다."[10]

이렇게 평신도들은 하느님 앞에서 직업적·가정적·사회적 의무 등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현세 질서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정돈합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영원한 도성이 없고 미래의 도성을 찾고 있으므로 현세의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이다. 그들은 바로 신앙 자체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그 모든 의무를 더욱 완전하게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11]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가 평신도의 성소와 사명에 관하여 이러한 선언에 이르게 된, 평신도에 대한 근대적 발전 과정을 다루면서, 성 호세마리아는 공의회 직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교회를 모든 신자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보는 더 깊은 시각을 가져다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같은 사명을 함께 짊어진 연대이며, 각자는 자신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

[8] "교회 헌장", 31 항.

[9] 같은 곳.

[10] "사목 헌장", 43 항.

[11] 같은 곳.

힘입어, 자신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셨기에 고유하고 숭고하며 필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반드시 교계의 위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 자신의 신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사명을 교회의 교계와 일치하여, 그리고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12]

성직자와 수도자의 성소도 세상을 성화하는 일에서 그들을 면제해 주지는 않지만, 그들이 성화를 이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성품을 받은 교역자들은 자신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은 그들 특유의 종말론적 증언을 통하여 이를 실현합니다.

교회의 *목자들*에게는 첫째로 교회의 사회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둘째로 그 분야에서 신자들과 그들의 양심을 양성하는 일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사회적·정치적 질서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목자들의 식별은 신자들에게 명령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명령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조직하는 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계의 몫이 아닙니다. 교계의 임무는 '윤리적·영적 도움'을 제공하고, 아울러 그 활동을 이끌어야 할 '윤리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활동은 평신도들이 "자유로운 주도권을 가지고, 목자들의 지시와 지침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수행할 것입니다[13].

교회는 인간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 체제라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지성과 의지와 행동으로 사회 교도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14].

교회의 모든 사명은 사랑, 곧 하느님과 이웃,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그 중심으로 삼습니다. "고통과 불의에 대항하지 않고, 그 고통과 불의를 감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개인이나 사회는 그리스도 성심의 사랑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15]

---

[12] 성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데 발라게르 몬시뇰과의 대화", 59 항.

[13] "평신도 교령", 7 항 참조.

[14] 루카 10,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32 항, 2037 항 참조.

[15]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67 항.

평신도의 자유와 책임

그리스도인 고유의 성소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문화적 활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생각하면, 우리는 국가의 세속성(*laicidad*)과 세속주의(*laicismo*)를 구별하게 됩니다. *국가의 세속성*이란 국가가 교회법에 대하여 자율적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세속주의*는 정치가 윤리 질서와 하느님의 계획 자체에 대해서까지 자율적이라고 주장하며, 종교를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가두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속주의는 종교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해칩니다[16].

건전한 세속성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합니다. 하나는 국가가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는 도덕을 강요하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문화적 또는 종교적 영역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가치들을 처음부터(*a priori*)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역들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속하는 것이며, 정치권력이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신자들에게 정치에서 '마치 하느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종교적 신앙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든 자신의 문화적 신념(종교적·철학적·정치적 신념 등)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념은 시민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당한 이유는, 신자든 비신자든 그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저마다 자신의 신조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보장되어야 할 것은 오직 사회·정치 활동이 인간 존엄과 공동선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따라 정치에서 행동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 존엄에 부합한다면, 정치가 종교에 종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가 인간에게 봉사하며, 따라서 윤리적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정치가 모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월적 동기로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인간 본성에 온전히 부합하며, 그러기에 그러한 노력을 북돋우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종교는 한 사회의 윤리적 가치들에 대하여 비판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거꾸로 윤리도 어떤 종교의 신자들이든, 그들의 믿음(또는 종교적 실천이나 그들의 종교적 신앙에서 영감을 받은 시민적 행동)이 인간 존엄과 공동선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그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종교와 윤리는 사회생활과 시민 생활 안에서 서로 대화해야 합니다.

---

16 "간추린 사회 교리", 572 항 참조.

교회와 국가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여러 방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교회와 국가 사이의 제도적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따른 모델은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국가였으며, 그 안에서 왕의 신성한 권력은 교회의 영적 권위로 보증되었습니다. 이는 상호 협력이었지만, 많은 경우 교회에서 자유를 빼앗기에 이르렀고, 교회는 사실상 왕의 현세 권력에 종속되었습니다. 계몽주의를 전후하여 일어난 사회·정치적 변화들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이바지하였고, 교회의 권위는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모든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리 체제가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성과 목적이 서로 다른)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관계는 오히려 분리 없는 구별, 혼동 없는 일치를 내포합니다(마태 22,15-21 과 병행구 참조). 그 관계는 두 영역 사이에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있고,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이 인정되며, 종교 자유의 권리가 존중될 때, 올바르고 풍요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사도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 28,19-20). 교회는 자신의 가르침과 사도적 활동을 통하여, 보편 교회 차원에서뿐 아니라 서방이든 동방이든 개별 교회들의 구체적 차원에서도, 현세 사물들이 올바르게 질서 지어지도록 이바지합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인간이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도록 돕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교회가 기관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들, 곧 복음 선포, 성사 집전, 기도입니다. 교회는 또한 그 구성원들이 인간이라는 본성에 맞갖은 물질적 수단도 사용해야 합니다(사도 4,32-37; 1 티모 5,18 참조). 이러한 수단은 언제나 복음에 부합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성이 필요하지만,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우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17].

*국가*는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에서 비롯된 기관이며, 그 목적은 시민 사회의 현세적 공동선입니다. 이 선은 물질적일 뿐 아니라 영적이기도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육신과 영혼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진보에는 물질적 수단 외에도 영적 성격을 지닌 다른 많은 선, 곧 평화, 질서, 정의, 자유, 안전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

[17]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46 항; "간추린 사회 교리", 426 항 참조.

선은 국가가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덕(예를 들어 공중도덕)의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 영역과 정치 영역의 구별은 국가가 '신성함'을 지니지 않으며 양심을 다스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의 윤리적 토대는 정치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강제력을 지닌 정치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에 속하는 것은 자발적인 일이므로, 교회의 권한은 영적인 성격을 띠며 하나의 정치적 해결책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교회는 각자의 고유한 기능에 충실하게 되며, 이는 종교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증진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권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종교 자유의 권리로서, 이는 종교 문제에서 국가의 강제력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세의 문제에서 교계에 대하여 가톨릭 신자들이 지니는 행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평신도들은 지상 국가의 일에 있어서 모든 시민에게 인정되는 자유가 자기에게도 인정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 행위가 복음 정신으로 고취되도록 유의하고, 교회 교도권이 제시하는 교리에 유념하며, 동시에 의견이 분분한 문제들에 있어서 자기 견해를 교회의 교리로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한다."[18]

종교 자유

앞서 말했듯이,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구별은 둘의 완전한 분리를 뜻하지도 않고, 교회가 자신의 활동을 사적이고 영적인 영역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분명 교회는 "국가를 대신할 수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19]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인간들 가운데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들의 구원을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도 도덕적 판단을 내릴"[20]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중요한 측면 하나는 *종교 자유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존중되도록 지키는 것은 사회 질서 전체가 존중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모든 신자가 종교 문제에서 사회적·시민적 자유를 누릴 권리는 모든 인권의 원천이자 종합입니다.

---

[18] "교회법전", 제 227 조; "사목 헌장", 76 항 참조.

[19] 베네딕토 16 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8 항.

[20] "사목 헌장", 76 항.

많은 나라에서 헌법(곧 한 국가의 통치 체제를 규정하는 기본법 체계)은 모든 시민과 종교 단체의 종교 자유를 폭넓게 보장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교회는 국가와 협정을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정교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협정에서는 교회와 교회 기관들이 사명을 수행할 자유, 교육이나 경제 분야의 협약, 축일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합의합니다.

엔리케 콜롬, 크리스티안 멘도사, 라미로 펠리테로

기본 참고 문헌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04-2109 항; 2244-2246 항; 2419-2425 항.
-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74-76 항; "종교 자유 선언", 1-8 항, 13-14 항.
-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1988 년 12 월 30 일, 36-44 항.

추천 도서

- 신앙교리성, "정치 생활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참여와 행동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교리 각서", 2002 년 11 월 24 일.
-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49-55 항; 60-71 항; 189-191 항; 238-243 항; 377-427 항.
- 성 호세마리아, 강론 "이 세상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에스크리바 데 발라게르 몬시뇰과의 대화", 113-123 항.